

다니엘의 책 - 번호 28

벽

Jeff Pippenger

2023-12-23

느부갓네살은 재림주의의 시작, 미합중국의 시작, 개신교의 뿔의 시작 그리고 공화주의의 뿔의 시작을 상징한다. 벨사살은 이 모든 흐름의 끝을 상징한다.

느부갓네살은 1798년부터 1844년, 곧 하나님의 조사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대표한다. 그의 증언은 다니엘서 1장과 병행한다. 벨사살은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과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대표한다. 그의 증언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와 병행한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의 나라가 그에게 회복되었던 179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한 "일곱 때"의 끝을 가리킨다. 그의 증언은 1844년에 남왕국 유다에게 임한 "일곱 때"의 끝에서 조사심판이 개시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의 증언에서 "시각"이라는 말은 첫째 천사의 심판의 시각 기별을 의미하며, 다시 그것은 그 기별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의 증언 속 "시각"은 1798년과 1844년 둘 다를 가리키는데, 이 두 해는 각각 첫째 진노와 마지막 진노의 종결을 나타낸다.

벨사살의 종말은 이천오백이십에 해당하는 신비로운 필적으로 표시된다. '일곱 때'는 그것이 '한 시간', '흠어짐', 또는 '이천오백이십'으로 표현되든, 심판의 상징이다. 니므롯의 심판은 '흠어짐'이었고, 느부갓네살의 것은 '일곱 때'였으며, 벨사살의 것은 이천오백이십이었다. 느부갓네살이 세 신실한 사람을 심판할 때 그는 화덕을 평소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하게 했다.

"일곱 때"의 심판은 첫째 기별의 임함과 셋째 기별의 임함에서 표시된다. 1863년 밀러주의 재림운동의 종결은 "일곱 때" 교리를 거절하면서 시작되었고, 126년 뒤인 1989년에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 "끝의 때"가 도래했다. 126은 "일곱 때"를 상징하므로, 1863년 첫째 천사 운동의 종결에서 1989년 셋째 천사 운동의 시작에 이르는 기간은 상징적인 126에 의해 "일곱 때"로 서로 연결된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의 몰락에 대한 증언은, 비록 그것이 '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아무도 '일곱 때'의 심판을 볼 수 없음을 가르친다. 공화주의의 뿔을 위해서는, 그 심판이 다니엘서 5장에서 제거되는 토마스 제퍼슨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 위에 기록되어 있다. 참된 개신교의 뿔을 위해서는,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려고 '벽'에 걸어 둔 두 개의 거룩한 도표 위에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눈멀음 속에서는 그 말들이 식별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에서, 그 심판의 말들은 참된 개신교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음을 나타낸다. 벨사살의 이야기는 세계의 나라들을 대표하는 공화주의의 뿔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국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징조, 1891년 7월 20일.

벨사살의 이야기에는 세상 만민을 대표하는 개신교의 뿔을 향한 메시지도 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바이블 에코, 1894년 9월 17일.

벨사살의 죄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두 뿔 모두의 죄를 대표한다. 각 뿔의 죄는, 그 진리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초 진리를 거부하는 데 있다. 공화주의의 뿔은 헌법의 빛과 그 신성한 문서가 제정되던 초기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로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거부되어 왔다. 그 나라가 용처럼 말할 때, 정교 분리라는 상징적 장벽은 제거될 것이다. 참된 개신교의 뿔에 대해서는, 기초가 세워졌던 때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에서 온 빛이 점진적으로 거부되어 왔고, 앞으로도 점점 더 거부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벽"도 거부될 것이다.

선지자는 여기서, 진리와 의에서 전반적으로 이탈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회복하려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생긴 틈을 보수하는 자들—그 율법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이며, 정의와 진리와 순결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그들의 영원한 보호책이 된다.

의미가 분명한 말로 예언자는 성벽을 세우는 이 남은 백성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일을 가리킨다.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밭을 돌이켜 내 거룩한 날에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움이라 하고, 여호와와 거룩한 날을 존귀히 여기며, 그를 공경하며 네 자신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기뻐하는 것을 찾지 아니하며,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 위에 타고 다니게 하며 네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을 말씀하였음이라.' 이사야 58:13, 14." 선지자들과 왕들, 677, 678.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계시한 성경적 방법론은 하나님의 예언적 법칙들을 나타내며, 고대 이스라엘과 달리 현대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언들까지도 맡아 보관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강한 큰 도끼,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어, 그분 자신과 거룩한 친밀함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신탁과 같이,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야 할 거룩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리자로 나아가 온 세상 방방곡곡에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에게 갈보리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한다. "영혼의 가치를 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무것도 이 일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그 영향은 영원에까지 미쳐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증언, 5권, 455쪽.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은 천사들에 의해 전해졌고,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세상에 전하라고 맡겨진 거룩한 위탁”이다. 십계명의 율법과 자연의 법칙, 건강의 법칙, 예언 연구의 법칙은 모두 동일하신 위대한 입법자께서 주신 것이며, 한 가지 계명을 거절하는 것은 곧 모두를 거절하는 것이다. 윌리엄 밀러에게 주어진 방법론을 거부한 일은 점진적인 반역을 시작했고, 결국 이는 재림주의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부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그분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신다. 이 논쟁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걸어간 길과 정반대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 아니라, 관습과 전통의 쓰레기 더미 아래 그것을 묻어 다른 이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교회들에서나 야외의 대규모 집회들에서,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주간의 첫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재난이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은 하나가 또 다른 것을 바짝 뒤따르며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작은 무리는, 일요일을 경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불러오는 자들로 지목될 것이다.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기 위해 이 거짓을 부추긴다. 사람들을 하여금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그는 모든 거짓 종교의 전파에 적극 관여하며, 그릇된 교리를 강요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종교적 열성의 외피 아래, 그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고안해 내고,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해 왔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같은 영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는 우리 시대에 되풀이될 것이다.

악을 이루기로 마음과 의지를 굳게 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자신들이 저지를 범죄를 이미 결의했다. 이들은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법칙을 거부하고, 그 대신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웠으며, 그 기준에 자신들을 견주어 스스로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의 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허용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 법의 요구에 충실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분의 법을 향한 그들의 미움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을 몰아붙였던 바로 그 종교적 광기의 영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같은 부패한 조화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 두었던 옛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았다. 교회는 규례를 바꾸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결과는 교만과 불신, 그리고 배교이다. 그런 교회의 참된 상태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패시켰으니, 그들의 흠은 그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로다.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이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리뷰 앤드 헤럴드, 1884년 3월 18일.

재림교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재림교가 진리를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된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을 부추겼던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 교회와 국가는 동일한 부패한 조화 속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재림교의 점진적인 반역은 에스겔 8장에서 점점 격화되는 네 가지 가증한 일로 묘사되며, 그것들은 1863년에 시작된 재림교의 네 세대를 예언적으로 표시한다. 마지막 가증한 일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태양에게 절할 때이다.

그가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보니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가량의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등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동쪽을 바라보며 해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서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그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다시 돌아와 나를 노하게 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그들의 코에 가지를 대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대하리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16-18.

그때 임하는 심판은 벨사살에게 내린 심판의 '때'에서 잘 드러난다.

벨사살 왕은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벨사살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왕과 그의 귀족들, 그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가져왔고, 왕과 그의 귀족들, 그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마셨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의 신들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 시각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의 등잔대 맞은편 회칠한 벽 위에 글을 썼고, 왕은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를 보았다. 그때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허리의 마디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쳤다. 왕이 크게 소리쳐 점성가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술가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 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며,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하였다. 이에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하였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주지도 못하였다. 그때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였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다. 다니엘 5:1-9.

벨사살의 심판이 임한 바로 그 '같은 시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

이제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비파와 양금과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다. 그러나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관하여 우리는 왕께 따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 왕이여, 이것만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분노가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얼굴빛이 변하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하며 명령하였다. 다니엘서 3:15-19.

벨사살에게 임한 심판의 "시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임한 심판의 "시간"과 동일하며, 두 경우 모두에서 "일곱 때"가 그 심판의 상징으로 제시된다. 세 신실한 자들은 일요일 법령 때의 큰 지진의 "시간"에 기치로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을 대표하고, 벨사살은 바로 그 동일한 "시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임하는 국가적 파멸의 심판을 대표한다.

다음 글에서 벨사살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경건의 수준이 낮은 형편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깊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선포된 화를 생각하면,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피워낸 불꽃을 따라 행한 자들에게 얼마나 더 무거운 정죄가 임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밤 시간에 나는 매우 엄숙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양심에게 묻도록 간청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 마음은 새롭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내 품성을 빚었는가? 나의 죄는 회개되었는가? 자백되었는가? 용서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인가? 내가 한때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는가? 한때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소유임을 느끼며, 매 시간마다 그의 봉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성별해야 함을 느끼는가?

우리는 중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온 땅은, 마치 물이 큰 깊음의 수로들을 덮는 것처럼, 주의 영광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격동의 때가 우리 앞에 있다. 오랫동안 잠잠했던 듯 보이던 오래된 논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논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새것과 옛것이 뒤섞일 것이며, 이 모든 일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잡아, 세상에 정해진 경고의 사명이 전해질 때까지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폭풍은 모여들고, 구름은 짙어지며, 세상 위에 터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밤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십 년, 삼십 년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은 미소 지으며 믿지 않으려 했다. 일요일이 온 세상에 강요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어 양심을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가 말씀하신 것 중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개신교는 큰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 교황권과 손을 맞잡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시야에서 지워버리려 짓밟는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사탄의 사주로, 교황권의 산물인 그 거짓 안식일을 제정한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여질 것이다.

하늘 전체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내게 보인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크고 오래 지속된 논쟁 속에서 위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크고 결정적인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보좌가 훼손될 것이다. 하늘의 병기고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온 우주와

그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정의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무시무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 그리고 온 세상의 황폐가 있을 것이다. 하늘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그 큰 위기에 대비하도록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긴박함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큰 빛과 놀라운 지식을 받은 백성임에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등불은 있으나 그릇에는 기름이 없는 다섯 잠자는 처녀로 대표된다. 그들은 차갑고 무감각하며, 쇠약해져 가는 경건만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위대한 충돌과 투쟁을 준비하는 동안, 새로운 생명이 아래로부터 퍼져 나오고 솟아나 사탄의 모든 세력을 빠르게 장악해 가는 한편, 위로부터는 새로운 빛과 생명과 능력이 내려와, 지금 많은 이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과 달리 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다. 이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보게 될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고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성령께서 인정되고, 영접되고, 백성 앞에 제시되어야 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삶의 섯길과 큰길 어디에서나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할 수 있다. 유일하게 확실하고 견고한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다. 오직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자들만이 안전하다.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증언을 통해 주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자들의 거룩한 가족과 결코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감각적이며 사상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들은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된 적이 없다.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며, 자아와 그 애정과 정욕을 지닌 세상을 결코 이겨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의 교회들 곳곳에 있으며, 그 결과 교회들은 연약하고 병들어 곧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이제는 미온적인 증언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부정을 꾸짖고 예수를 높이는 단호하고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기대하는 태도로, 일하고 기다리고 깨어 지켜보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복된 소망은 그 엄숙한 현실과 함께 사람들에게 자주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곧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것들을 공허와 허무로 여기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명예나 지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는 참된 신자는 세상을 초월하여 살기 때문이다;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순례자요 나그네다.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햇살을 자신의 영혼에 모아, 세상을 뒤덮은 도덕적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빛나는 빛이 되려 한다. 그에게서 얼마나 강건한 믿음, 얼마나 생기 있는 소망, 얼마나 뜨거운 사랑, 얼마나 거룩하고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보이는가, 그리고 그와 세상 사이에 얼마나 분명한 구별이 있는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에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Pamphlets, 38-40.